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보도	배포 시	배포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책 임 자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탁 윤 성(02-2100-2880)	담 당 자	김 미 정 사무관 (02-2100-2881)	

제 목 : 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 논의결과

1. 개요

-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은 11.17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¹⁾ 런던 총회에 참석하였음

* 금년 3월 일본 동경, 7월 중국 청두에 이어 3번째 총회

-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분야별 금융규제 권고안 및 향후 작업계획을 점검
- 독일은 '17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향후 주요 의제가 ① 시장기반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 ②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될 것으로 확인

2. 주요 논의내용

- (취약성 평가) FSB는 불확실성 및 위험회피 성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이 원만히 작동해 온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신용 사이클이 성숙됨에 따라 높은 국가·기업 부채를 우려
 - 선진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과 수익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부실대출(기업, 부동산대출)의 증가에도 주목

1)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핀테크) 핀테크 혁신의 공통요소를 ①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향상, ②효율성 확대, ③脫중앙화·脫중개화로 설명하였으며, 각 요소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

- 향후 실무그룹 등을 통해 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 및 정책이슈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 방향을 검토하기로 합의

- (TLAC²⁾) G-SIB에 대한 TLAC 규제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내 TLAC* 지침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 자회사 수준에서 TLAC 채권을 발행, 이를 모회사가 보유토록 하여 자회사 부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

- (자산운용) 자산운용업 정책 권고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 ('16.6~9월) 및 권고안 수정방향에 대해 논의

* 투자자 공시 개선, 유동성관리 강화, 레버리지 모니터링 개선 등

- (그림자금융) '16년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결과를 점검하였으며, '17.7월 (차기 G20 정상회담)까지 '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금융 시장의 발전 및 그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

- (G-SIFI) '16년 평가결과에 따른 G-SIB 및 G-SII³⁾ 목록을 승인

- (규제개혁) 내년 G20에 제출될 「'16년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연례보고서」에는 ① 정책평가 분석체계 및 ②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점검 보고서가 추가될 예정

- 기타 CCP 정리체계, 기후변화 관련 공시, 코레스 बैंकिंग, 위규행위 리스크 등에 대한 규제개혁안 등 논의

※ 자세한 논의사항은 붙임의 FSB측의 보도자료(영문) 참고

2) TLAC :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3) G-SIB: Gloa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I :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1.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임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협의체

○ '11.11월부터 영란은행 총재 Mark Carney가 FSB 2대 의장 취임 중

* 초대 의장 : 現유럽중앙은행 총재 Mario Draghi

FSB의 설립 경위

- (FSF) 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 : Financial Stability Forum)은 '99.4월 G7 재무장관회의의 결과 금융 감독 및 검사 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
- (FSB로 확대개편) '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09년 4월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로 확대 개편에 합의하여 '09년 4월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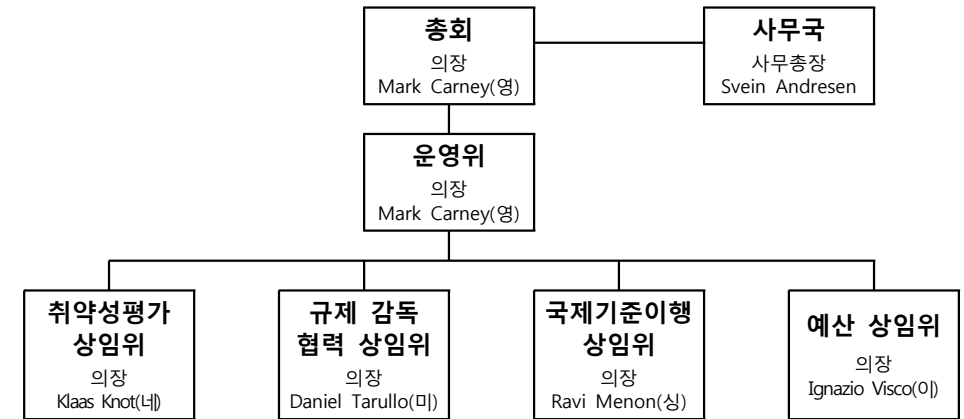
- (FSB의 목적) 주요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등의 감독방향을 조율·선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처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 정책 등을 개발하고, 각국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

FSB의 기능

- ①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조연구와 감시
- ② 금융규제기준 준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관련 조연구와 감시
- ③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OSCO, IAIS 등)와 공동 정책개발
- ④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국가간 위기관리(cross-border risk management) 비상계획 수립 지원
- ⑥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IMF와 공조]

2. FSB 구성 및 한국 참여현황

- (FSB회의체) 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 (회원현황) 24개국 및 EU*의 59개 회원기관(금융당국, 재무부, 중앙은행)과 10개 국제기구** 참여

*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아르헨,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니,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EU (이상 G20) 및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 OECD, BIS, IASB, CGFS, CPMI, IMF, World Bank, BCBS, IAIS, IOSCO

- (참여현황) 금융위원회는 '09년6월 FSB에 가입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및 규제 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등 참석

- 금융위원회와 공동가입한 한국은행은 총회와 취약성평가 상임위 참석
- FSB논의 참여를 통해 금융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정한 금융규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rule taker”에서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rule setter”로 위상 제고